

# ‘한국판 신들러리스트’ 브레이즈델을 아시나요

### 6·25전쟁때 고아 1000여명 구출...광주 충현원에 동상 내일 서울서 10주기 기념식·국제학술포럼 등 추모행사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충현원’(忠峴院).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 앞에는 한 팔로는 전쟁 고아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또 다른 고아의 손을 잡고 있는 인물의 동상<사진>이 세워져 있다. 고(故) 러셀 브레이즈델(Russell Blaisdell) 군목(軍牧)이다. 그는 미 공군 중군목사로, 한국전쟁 초기 서울에 있던 고아 1000여명을 제주도로 피신시키고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의 삶을 조명하고 기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950년 12월 중공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서울로 진격해오던 시기, 당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어린나이에 탓에 대피할 수 없었다. 브레이즈델 군목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4대의 해병대 트럭을 이용해 이들 1069명을 김포공항으로 이송한 뒤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켰다.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대령으로 전역했다. 그의 ‘고아 구출작전’은 충현원 측이 설립자인 고 박순이 선생의 기록발굴을 위해 지난 2005년 미국을 방문, 브레이즈델 군목을 만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브레이즈델 대령 등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전쟁 사진전을 열고 있었는데 충현원은 참전용사들을 통해 브레이즈델 대령의 선행을 알게 됐다. 당시 브레이즈델 대령은 한국 전쟁 중 고아들을 대피시킨 사실을 충현원 측에 다시 한 번 알려준 뒤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해 달라며 한국어 판권을 충현원에 기탁했다. 브레이즈델 대령의 회고록은 그가 숨진 뒤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 명의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8년 5월 출판됐고 충현원은 모금을 통해 지난 2009년 12월 17일 동상을 세웠다. 그는 지난 2007년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충현원측은 올 해 러셀 브레이즈델 대령 추모 10주기를 맞아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학술포럼을 연다. 카터 브레이즈델 목사의 ‘어린이 구출작전’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사를 주관한다. 유혜량 충현원 원장은 “이번 행사의 목적은 브레이즈델 대령의 희생적인 고아 구출작전을 알리는 것에 있다”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고아들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그의 생명 존중과 헌신적인 삶을 배우고 추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장남인 카터 브레이즈델 목사를 초청, 한국전쟁 당시 고인에 의해 구조된 고아들과의 감격 만남도 예정됐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2:51  
해질 19:50    달지기 16:28

해법은 땀방-오존은 '니뽀'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20/34	보성	17/30
목포	20/28	순천	19/32
여수	21/28	영광	18/29
나주	18/33	진도	18/29
완도	20/29	전주	18/33
구례	17/33	군산	20/30
강진	18/30	남원	18/33
해남	18/30	홍산도	19/25
장성	17/31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	서	0.5
남부	북서	0.5~2.0	서	0.5~1.5
남해	북서	0.5~1.5	남서	0.5~1.0
서부	북서	1.0~2.5	북서	1.0~2.0
서부	북서	1.0~2.5	북동	1.0~2.0

### 생활지수

경고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 주간 날씨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	☀️	☀️	☁️	☁️	☀️	☀️
20/34	21/33	22/28	21/28	21/28	20/28	20/29



‘집중’ 전국 모든 중 3과 2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 일부 학생만 치르는 표집(標集) 평가 방식으로 바뀌어 20일 실시됐다. 광주·전남에서는 18개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17개 고교 2학년생들이 응시했다. 광주제일고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드디어...장마 이달말 시작

### 장마 전까진 폭염...기상청 “강수량 예년 못 미칠 듯”

드디어장마다. 이상 고온 현상과 심한 가뭄으로 타들어 가던 농민들의 가슴을 적셔줄 빗줄기가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마른 장마’라는 게 어렵다. 장마 전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평년(6월23일)보다 5~7일 정도 늦어졌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23일이며 7월23일~24일께 끝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가 언제 시작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전남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까. 장마가 본격화되는 7월 광주·전남 평균 강수량은 평년(275.3mm)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마른 장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일단, 광주·전남에서는 24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5mm 이상으로, 26일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 장마 전까지는 폭염이 이어진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를 비롯한 화순·나주·순천·광양·구례·곡성·담양에 폭염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1일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4명 찾고...세월호 객실 1차 수색 마무리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객실 구역 1차 수색이 63일 만인 20일 마무리됐다. 참가 발생 1161일 만이다. 1차 수색에서 유해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한 미수습자는 총 4명이다. 단원고 조은화·허다운양, 이영숙씨의 유해가 선체 수색에서 발견됐다. 단원고 고장석 교사의 유해는 진도 침몰해역 수중수색에서 발견됐다.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

철·박영인근,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1차 수색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5명의 미수습자가 발견되지 않자 당국은 1~2층 화물칸으로 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운양의 유해가 화물칸과 객실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유해가 화물칸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 구례서 희귀식물 ‘충충등골레’ 발견

### 지리산 일대서는 ‘히어리’ 대규모 군락



충충등골레



히어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구례지역 산림자원조사에서 환경부 법정 보호종인 충충등골레 등 희귀·특산수종을 다수 확인했다. 20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4~15일 구례지역 산림자원조사 결과 환경부 멸종위기종 II급인 ‘충충등골레(Polygonatum stenophyllum Maxim)’가 자생지인 강원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이 아닌 구례에서 처음으로 그 서식지가 발견됐다. 이는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으며,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판단이다. 충충등골레 서식지는 주로 강이나 수로 주변으로 국내에서는 농경지화와 산업화로 자생지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지만, 이번 구례지역 조사에서는 일대의 군락지가 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진 산림청 지정 희귀수종인 ‘히어리’의 경우 키가 보통 1~2m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5m 이상 급의 군락이 대규모로 확인됐다. 지리산 문수굴 일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림청 특산식물 ‘문수조릿대’는 사성암 인근에 몇 개소의 군락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삼진강변에서는 특산식물로 지정된 ‘키버들’이 서식하는 등 지리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일대에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산림생태계의 보고임이 확인됐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푼지나무’ 등 미보유 수종 17종을 보존·증식용으로 확보했으며, ‘박쥐나무’ 등 유용식물 31종을 확보했다. 확보한 종에 대해서는 기능성 물질을 구명하고 식의약 자원의 소재개발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 착한보청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